



제 2105호 2019. 10. 27. 연중 제30주일

제1독서 : 집회서 35,15ㄴ-17.20-22ㄴ

제2독서 :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6-8.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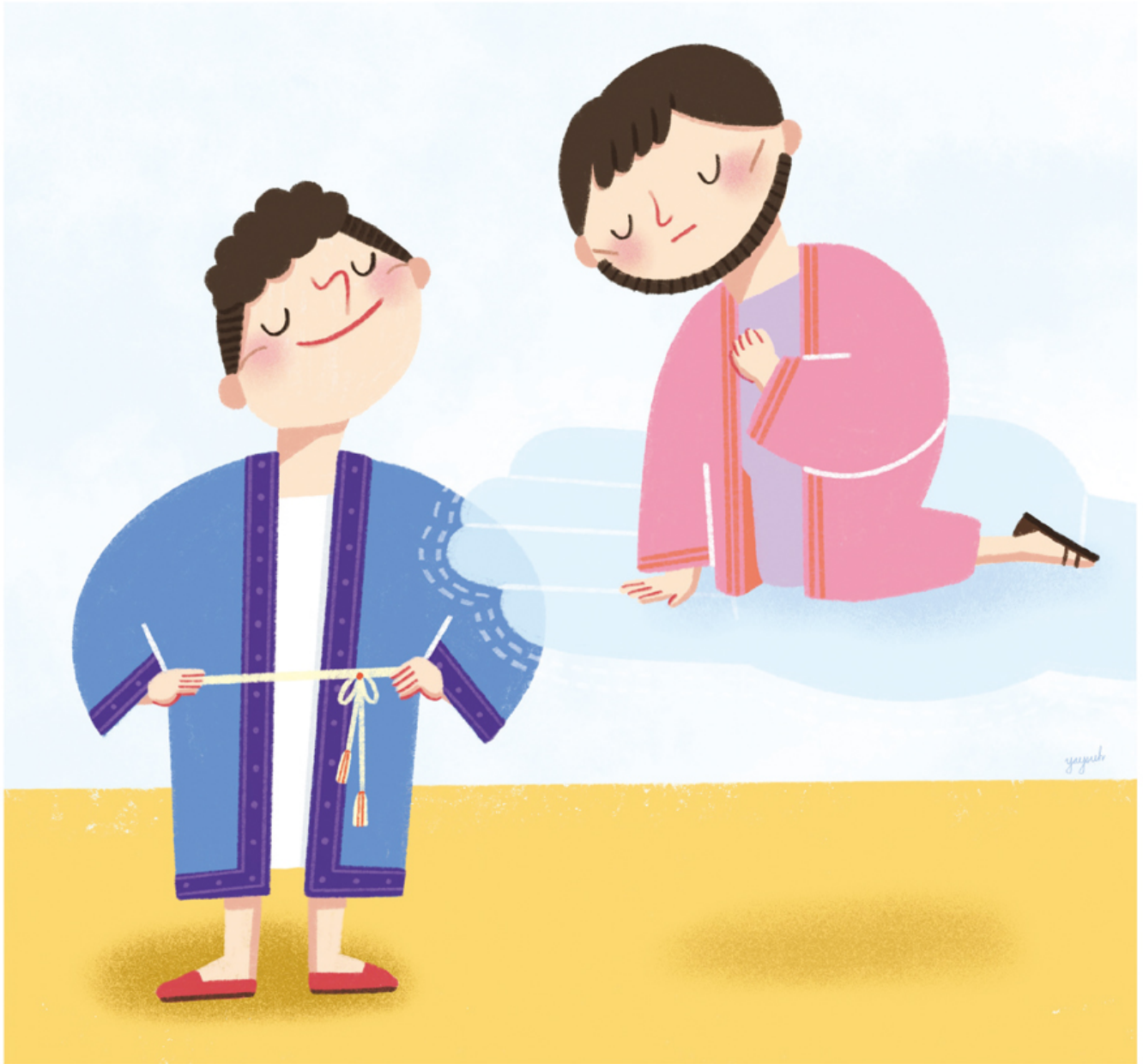
복 음 : 루카 복음서 18,9-14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중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희 발레리아

예수님께서도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사이는 꼴꼴이 서서 혼잣말로 ‘제가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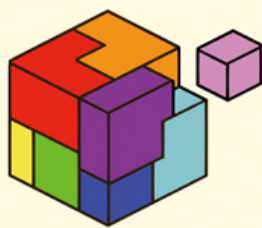
찬미 예수님! 여러분은 친구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들 다르겠죠. 재밌는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 운동을 잘하는 친구 등 다들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모든 것을 갖춰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신부님도 어렸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예의도 바르고, 또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도 동시에 부러운 마음도 컸죠. 그 친구가 대회에서 상도 타고, 선생님께 매일 칭찬만 듣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은 모습을 보니 어느 순간 신부님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 아이는 저렇게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 밖에 못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3지구 녹번동 성당
박현진 마르코 신부님

아마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리가 신부님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옆에서 기도하는 바리사이는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자기는 율법도 잘 못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에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둘 중 누가 의롭게 되어 돌아갔다고 하나요? 맞아요 잘난 바리사이가 아닌 부족한 세리가 의롭게 되어 돌아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사이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할 필요 없이 자신의 자랑만을 이야기하느라 바빴죠.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하느님께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세리가 더욱 간절하게 하느님을 찾고 의지했기에 하느님은 세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죠.



그림_ 최진태 임마누엘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구는 남들보다 더 잘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만약 친구들이 스스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의지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더욱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기쁜 한 주 되길 바랄게요!



오늘 복음에서 의롭게 되어 돌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바리사이

② 세리

③ 율법학자

엄마와 함께 예수님 사랑 만들기



고척동 성당 5학년
구지운 스텔라

우리는
행복한 친구들



128화 목주기도 성월에





첫영성체 액자 접기

장안동 성당 6학년
김세이 안젤라

“세이야, 엄마 도와줄 수 있을까?”

“원데요?”

엄마께서 쉬고 있던 내게 가정교리 아이들에게 줄 신경 액자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셨다.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돌아와 복습과 예습, 숙제 등을 하느라 자유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졌다. 하지만 집안일을 하시며 툼툼이 액자를 접으시는 엄마를 보고 도와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가 액자를 빨리 접는 모습을 보시고 엄마께서, “우리 딸은 손재주 참 좋구나. 덕분에 빨리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라고 칭찬해주셨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져서 더 열심히 액자를 접었다. 액자 접는 일이 끝나고 엄마께서 액자들을 조심히 가방에 담으셨다. 이번 신경 액자는 작년과 디자인이 달랐는데 작년보다 예뻐다. 엄마와 둘이 정성스럽게 접은 것을 생각하니 더욱 특별해 보였다.

그리고 신경 수여식 날, 신경 액자가 예쁘다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후, ‘왜 도와드리기를 망설였을까?’ 같은 후회를 했다. 신경 수여를 받는 것은 단 한 번 있는 일이다. 그런 중요한 일은 엄마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교리 아이들,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정에서 실천한 예수님 사랑!’ 이 주제를 들었을 때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 가정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적어보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첫영성체, 가정교리, 신경 등이 뇌리를 스쳤고 액자 접는 일을 쓰기로 했다. 평소에 실천했던 사랑 중 유독 가정교리에 대한 일을 선택한 것을 보면 요즘 성당 가정교리나 첫영성체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주시는 엄마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하루를 별탈 없이 보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엄마의 기도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목한 가정, 착한 친구들,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내가 받은 사랑, 도움, 관심 등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와 친밀한 관계나 가족이 아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실천한 예수님의 사랑이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과 참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